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정신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

The Effect of Information Conditions on Mental Health among Elderly

Yoon-Jung Lee*

Dept. of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Hoseo Un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의 또 다른 적응요소를 생활과업 측면에서 고려하고,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도, 핸드폰 소유정도를 통해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우울감이나 자살생각 즉, 정신건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로 60세 이상 노인 6,774명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다중회귀분석과 로짓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남성노인이, 젊은 노인들이, 교육수준과 경제적 생활수준이 높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과는 다른 인구사회적 배경을 지닌 대상들은 정보화에 있어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양호하지 않은 노인들은 우울수준과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과 로짓분석 결과 정보기기 접근 수준은 우울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검증되었으며, 노인의 자살생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지지서비스 개발과 정보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개입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노인, 정보화, 정보기기, 우울감, 자살생각

Abstract The major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omputer and internet literacy and cellular phone possession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elderly. This study used data of 2011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computer and internet literacy and cellular phone possession, a total of 6,774 respondents over 60 years of age was selected. The SPSS package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logit analysis was run to verify influence of information conditions(computer and internet literacy and cellular phone possession)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 who is male, younger, has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level and lives with spouse is in good information conditions. On the contrary to this, the elder who is female, older, low level of education and economic, single and lives with grandchildren is in information minority group. They have high level of depression and rate of suicidal ideation. Second, computer and internet literacy and cellular phone possession associate with level of depression significantly. Third, computer and internet literacy do not associate with suicidal ideation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ignificant source to plan informatization policy and welfare services for socially isolated older people.

Key Words : elderly, inform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와 일부 내용은 2012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된 바 있음

Received 1 July 2013, Revised 20 July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Yoon-Jung Lee(Hoseo Univ.)

E-mail: yoon2525@hoso.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은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2012년 현재 81.9%와 81.8%로[1] 세계적인 정보 강국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2], 새로운 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그 어느 시기보다 빠르고 지속적이어서 메신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이용 등이 친교 혹은 교제의 중요 도구로[3] 거론될 만큼 소통과 교류의 양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정보 인프라는 모든 국민의 생활환경에 깊숙이 파고들어, TV와 라디오, 전화 등의 방송통신기기의 발달이 가져온 일상의 변혁과 같이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사용자에게 신속한 적응능력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적응하는 현대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다양한 사람들 속에 무한한 참여가 가능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끊임없이 확장시킬 수 있어 정보의 확산과 그 파급효과로 위대한 결과를 창출하기도 혹은 또 다른 소외와 갈등의 깊은 골을 만들기도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을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10-30대 젊은 층은 99%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7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정보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므로[3] 세대 간 소통과 교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고령자층은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내 적응의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다.

노년기의 심리정서적 발달의 주요 과업은 사회적 역할상실과 신체적 노화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우울감의 극복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그 노력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의 자살율이 1위인 국가로 거론되어, 노인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소통과 교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정보와 지원책을 개입시키고 있다[4]. 그러나 다소 획일화된 접근들로 영향요인의 다각적 모색과 효과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50세 이상 성인 후기에 속하는 이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거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등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5][6][7], 전화로 노인들과 친구되기 프로그램을 수행해 노인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재고용, 사회적 활동을 재기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데 통신기술의 개입 가능성과 유용성을 보고하고 있다[8]. 이렇듯 현대사회에서의 컴퓨터나 인터넷, 유무선 통신기기를 활용한 사회적 접촉은 인간의 정신건강 증진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9].

한국의 경우, 해마다 늘고 있는 자살률로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까지 제정하였는데[10], 자살의 원인은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살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11]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프랑스의 전화사례관리, 영국의 그린카드(응급전화번호가 기입된 카드) 도입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자살시도자의 자살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입효과를 검토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고안하는 등[11] 국내 실정에 부합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로, 효과 예측이나 검증은 점차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기기의 접근 수준이 정신건강 영역 특히,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아가 자살생각에 관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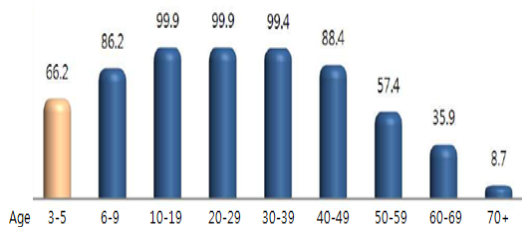
-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의 접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
- 둘째,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을 우울과 자살생각 차원에서 살펴본다.
- 셋째, 노인의 정보기기(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 접근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를 우울과 자살생각 차원에서 살펴본다.
- 넷째, 노인의 정보기기(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 접근 수준이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우울과 자살생각 차원에서 검증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컴퓨터 혹은 인터넷 활용이 노년기에 경험하는 소외 및 역할 상실 등 적응의 과정에 보다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자긍심 향상과 더불어 사회참여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12][13][14][15].

이에 이금룡(2007)은 노인의 정보화가 노년기 적응과정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SOC Model을 적용해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alization), 보상(compensation)의 단계로 노년기 기능상실의 보완과정을 탐색한 바 있다[14]. 그 결과 인터넷 활용이 노인들에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과 역할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된다기보다는 다른 동기와 계기를 통해 선택되며, 현재의 상황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정도의 기능에 그쳐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인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과 연계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은 노인들에게 제한적이고 편협한 보완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당시의 시점에서는 인터넷 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보화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Fokkema와 Knipscheer(2007)도 노인의 외로움 극복을 위해 이메일 등 전자통신수단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인의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5] 노인이 선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Fig. 1] The Internet Access rate by Age group(%)
Source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1).
「2011 The Research of Internet access」

실제로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 해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16]. 그러나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인터넷 소용몰

이용률(19.7%, 전체 64%)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률(16.2%, 전체 42%)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컴퓨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당 시간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다른 연령대와의 정보 격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장노년층의 정보격차지수는 32.5로 평균 28.9보다 높다. 이는 정보격차지수가 가장 높은 농어민층의 지수 38.2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17]. 스마트폰 이용률에 있어서도 장노년층은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18],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구입비 및 이용비용의 부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6%보다 높다. 즉, 정보 격차를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 접근수준으로 언급하는 접근격차에 있어서도, 그 사용능력 수준을 의미하는 역량격차에 있어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으로 업무, 학업, 여가, 사회활동,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형성 등 일상생활 부분별 도움받는 정도를 의미하는 질적 활용격차에서도 노인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점차 정보화에 있어 접근의 격차는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을 통해 좁혀지고 있고, 역량의 격차는 교육 등 노인 프로그램 개입으로 해결점이 모색되고 있으나, 사회적 배제라 여겨질 수 있는 질적 활용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한편,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만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고,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소득수준도 높고, 인터넷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어[19][20], 장노년층 내에서도 정보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서재철과 그의 동료들(2008)은 노인들의 이메일 이용률과 블로그 이용률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어서 53%, 18%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며, 인터넷 신문읽기와 잡지 및 서적 읽기 영역은 타영역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향후 이 영역에서의 고령자 이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21]. 즉, 현대 정보화 사회의 노인은 시대적 흐름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연령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소외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더불어,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집단 내 정보기기

의 접근 수준은 인구사회적 변인에 따라 세대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발달과업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또 다른 적응 요소가 될 수 있다.

2.2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과 정신건강 영역과의 관련성

정보화 시대의 노인의 사회적 욕구와 행동, 그 수준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김재휘·김지호·신상화(2002)는 노인은 다양한 정보획득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며(35%), 온라인상에서 친교를 확대해 외로움과 무료함이 감소한다(43%) 하였고, 자존감 향상(22%)도 경험한다고 하였다[22]. Hogeboom et al.(2010)도 50세 이상의 성인 후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친구, 가족과의 접촉이나 조직이나 단체 활동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킨다고 하였다[20]. 한편 이윤정·안준희·임경춘(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여가놀이를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즐길 의향을 갖고 있어(51%), 40대(32%) 보다 더 많은 이용의지를 나타냈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도 23%나 지니고 있었다[23].

이미진·이가옥·이지영(2008)은 교육도우미의 일대일 교육방식으로 노인에게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격차 효과를 연구한 바 있는데, 노인들에게 휴대전화의 주요기능 교육을 4회 실시하고 최종 36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교육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휴대전화 사용 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켜[24] 정보화 수준이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안준희와 그의 동료들(2011)은 인터넷 및 컴퓨터 게임 활동이 노인의 자신감을 높여 일상생활에서의 자아통제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아통제감이 매개요인이 되어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25].

Fokkema and Knipscheer(2007)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신체적 제약을 가진 노인들에게 약 3년 동안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도록 한 결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외로움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고학력 집단에서 정서적 외로움의 감소효과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동안 외로움을 잊게 된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 중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감 증가의 효과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5]. 즉, 노인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의도적 노력 혹은 지원을 통해 욕구의 실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심리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Shima Sum et al.(2008)은 55세 이상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수단으로써 인터넷 사용은 사회적 고립감을 낮출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그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서적 고립감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6]. 이에 이금룡(2007)은 질적 연구를 통해 노인의 정보화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가족, 특히 손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이메일 등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해 처음에는 자아효능감을 느끼거나 바쁜 상대방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풍요롭게 형성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이메일의 활용도가 매우 높으나 지속성을 유도하는 자극요인은 적어[14] 활용도가 미미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정보통신환경의 적응 또는 활용을 의미하는 정보화 수준이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22][12][25][14][24][23][7], 그 사회의 정보화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상대적으로 질적 활용격차가 커지는 노인들에게는 일부 여가와 사회활동, 소통과 대인관계에서 또 다른 소외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 혹은 유무선 통신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 우울 등의 감정도 관련을 갖는다고 보고한 연구는 최근으로, 논의와 검증이 초기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arak and Grohol(2011)은 온라인 상의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즉 온라인 상담이나 심리치료, 심리교육 등이 가능하고 지지그룹이나 블로그가 만들어지거나, 모바일을 통한 개입도 미래에 실현가능함을 예견하면서 유무선 통신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논한 바 있으며[9], Erickson and Johnson(2011)도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록 인구사회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

이기는 하나 의사소통이나 정보습득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활동이 우울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하였다[7]. 이에 정보화 환경이 곧 생활이 되고, 일상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현대사회에서는 노인의 정보화 수준은 일상의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보화 환경의 적응은 우울 등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반면 Feigelman et al.(2008)은 실제 가족원의 자살로 고통받고 우울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지지그룹과 인터넷 지지그룹으로 나누어 상실감, 낙인감, 적응, 슬픔 등의 감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지지그룹에 속한 이들이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1년간 자살을 계획한 이들의 비율 역시 유의미하게 높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터넷 지지그룹 내 우울수준이 높은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반응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인터넷 지원을 통해 받은 도움은 매우 유익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26]. 인터넷 지지가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고립감을 증진시키거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활동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우울수준은 성별, 교육수준, 자녀와의 동거유무, 경제적 상태 등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주로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 약화, 활동능력 저하, 고령, 학대 및 사회적 고립 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7][28][29][30][31]. 우울감이 지속되면 노인은 자존감 저하, 사회적 위축,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절망,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데[32], 따라서 우울감은 노인의 자살생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검증되고 있다[28].

자살생각은 자살행위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관계로 흔히 자살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다. 자살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살생각, 자살시도와 자살행위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나 여전히 자살변인의 한 요소로써 자살행위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33]. 이에 기존의 자살 연구들은 자살의 개념에 자살생각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살(죽음)을 생각하기 이전의 우울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울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전화나 대면 이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환경에서도 개입이 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은 다른 연령집단과는 다르므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우울과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은 접근부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래 노인의 모습은 지금의 노인과는 다른 정보화 수준을 지닐 것이므로,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나 정보활용능력 등이 지니는 영향은 노인의 자살을 자극하거나 우울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다. 특히 정보기기 보유와 활용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직결되고 있는 요즘, 노인의 정신건강 영역에 미칠 영향력은 또 다른 개입요소의 발견을 위해 서라도 검증이 시도되어야 한다.

3. 연구방법

3.1 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34].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 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사의 모집단은 2005년도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실시된 10%의 표본조사구와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을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표본추출은 층화 2단 집락추출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조사대상자 중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를 선별해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들만 추려내어 주요 변수들의 극단치와 이상치를 제거한 후 집계하였는데 최종 6,774명이었다.

3.2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3.2.1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과 연령, 학력수준, 가구유형, 취업, 자가소유, 가구원 수, 소득수준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더미변수화하였고, 연령은 만 연령이 기준이며, 학력수준은 무학, 초등

졸, 중등졸 이상으로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및 로짓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력변인을 더미변수화하여 '무학' 집단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유형은 원자료 기준을 토대로 4집단으로 구분해 독신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조손가구로 분류하였다. 가구유형이 종속변인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부부노인가구'를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취업상태는 취업하지 않은 집단과 취업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비취업집단이 기준변수로 처리되었다. 자가유무는 무소유집단과 소유집단으로 구분해 무소유집단을 기준변수로 처리하였다. 소득수준은 연간 총소득으로 만원을 단위로 제시하였다.

3.2.2 정보기기 접근수준과 정신건강관련 변인

정보기기 접근 수준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가능 여부와 핸드폰 소유 여부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보의 접근성, 활용역량, 질적활용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는 정보수단의 접근 가능함과 보유여부의 파악이 노인의 정보화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건이라 판단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의 원자료에서도 추출가능한 변수였으므로 2가지 변인을 선택하였다.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 우울수준은 노인실태조사의 설문문항 총 15개를 그대로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그 내용 중 우울증상 해당란에 체크하였을 경우,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하여 응답한 질문 수를 더해 총 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0.909$ 로 파악되었다. 자살생각은 생각한 적이 '없다'와 '있다'로 응답된 내용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없다'의 응답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3.2.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특성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기초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적 변인과 정보기기 접근 수준에 따른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T검증, 카이스퀘어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종속변인이 이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방법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4.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와 같이 남성의 비율이 56.8%로 여성보다 높고, 학력수준은 무학의 비율이 34.4%, 초등졸인 경우가 33.2%, 중등졸 이상의 집단이 32.4%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부부노인이 가장 많아 38.7%였으며, 독신도 33.5%나 되었다. 취업상태는 비취업비율이 높아 64.3%였으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70.5%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2명이었으며, 연간 총소득은 1850만원으로 월 평균 153만 9천 원 수준이었다. 연령은 평균 만 74세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Gender	Female	2,923	43.2
	Male	3,851	56.8
	Total	6,774	100.0
Education	uneducated	2,330	34.4
	Elementary school	2,252	33.2
	Middle school or above	2,192	32.4
	Total	6,774	100.0
Family Type	Single	2,229	33.5
	Couple	2,574	38.7
	Live with children	1,682	25.3
	Live with grandchildren	172	2.6
Total	6,657	100.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4,356	64.3
	Employed	2,418	35.7
	Total	6,774	100.0
Home ownership	Non-possession	1,997	29.5
	possession	4,777	70.5
	Total	6,774	100.0
Number of Family		2.1	1.3
Yearly Income(10,000 Won)		1847.7	1755.7
Age		74.2	6.1

4.2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수준

대상자들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을 컴퓨터/인터넷 활용 가능 여부, 핸드폰 소유 여부로 구분해 인구사회적 특

(Table 2) Information Condi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
(% or Standard Deviation)

		Computer/Internet Literacy			X ² /T-test	Cellular phone possession			X ² /T-test
		Unavailable	Available	N		No	Yes	N	
Gender	Female	2797 (96.3)	108 (3.7)	2905 (100.0)	336.39 ***	1076 (36.8)	1845 (63.2)	2921 (100.0)	240.88 ***
	Male	3101 (81.6)	701 (18.4)	3802 (100.0)		766 (19.9)	3085 (80.1)	3851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Education	uneducated	2283 (99.0)	24 (1.0)	2307 (100.0)	1156.30 ***	997 (42.8)	1332 (57.2)	2329 (100.0)	544.40 ***
	Elementary school	2127 (95.5)	101 (4.5)	2228 (100.0)		582 (25.9)	1669 (74.1)	2251 (100.0)	
	Middle school or above	1488 (68.5)	684 (31.5)	2172 (100.0)		263 (12.0)	1929 (88.0)	2192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Family Type	Single	2127 (95.6)	97 (4.4)	2224 (100.0)	229.81 ***	736 (33.0)	1491 (67.0)	2227 (100.0)	131.99 ***
	Couple	2072 (81.6)	468 (18.4)	2540 (100.0)		504 (19.6)	2070 (80.4)	2574 (100.0)	
	Live with children	1453 (87.6)	205 (12.4)	1658 (100.0)		534 (31.7)	1148 (68.3)	1682 (100.0)	
	Live with grandchildren	160 (93.6)	11 (6.4)	171 (100.0)		54 (31.4)	118 (68.6)	172 (100.0)	
	Total	5812 (88.2)	781 (11.8)	6593 (100.0)		1828 (27.5)	4827 (72.5)	6655 (100.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3770 (87.8)	526 (12.2)	4296 (100.0)	0.37	1393 (32.0)	2961 (68.0)	4354 (100.0)	141.49 ***
	Employed	2128 (88.3)	283 (11.7)	2411 (100.0)		449 (18.6)	1969 (81.4)	2418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Home ownership	Non-possession	1840 (93.2)	135 (6.8)	1975 (100.0)	72.09 ***	683 (34.2)	1313 (65.8)	1996 (100.0)	70.40 ***
	possession	4058 (85.8)	674 (14.2)	4732 (100.0)		1159 (24.3)	3617 (75.7)	4776 (100.0)	
	Total	5898 (87.9)	809 (12.1)	6707 (100.0)		1842 (27.2)	4930 (72.8)	6772 (100.0)	
		Computer/Internet Literacy			X ² /T-test	Cellular phone possession		X ² /T-test	
		Unavailable	Available	N		No	Yes		
Number of Family	Mean	2.1 (1.3)	2.4 (1.1)	809	-6.22 ***	2.1 (1.3)	2.2 (1.2)	-1.28	
	N	5898	809			1842	4930		
Yearly Income	Mean	1672.8 (1566.9)	3110.6 (2426.7)	809	-16.39 ***	1505.8 (1568.9)	1975.7 (1804.5)	-10.52 ***	
	N	5898	809			1842	4930		
Age	Mean	74.6 (6.0)	71.0 (5.5)	809	17.57 ***	77.6 (5.9)	73.0 (5.6)	29.80 ***	
	N	5898	809			1842	4930		

* p<.05, **p<.005, ***p<.001

성별로 차이를 검증한 내용은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에 있어서는 성별과 학력, 가구유형, 자가유무, 가구원 수, 연간 소득수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활용가능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은 높

을수록 활용가능한 비율이 높아 초등졸은 1.0%, 초등졸은 4.5%인데 비해 중등졸 이상에서 31.5%의 응답율을 보였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부가구의 활용가능비율이 가장 높아 18.4%였으며, 독신가구는 활용가능비율이 가장 낮아 4.4%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기 집을 소유한 집단이 무소유 집단보다 활용가능비율이 높아 14.2%로 나타났다.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집단의 가구원 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았으며, 연간소득수준도 높았으나, 연령은 낮게 나타났다.

핸드폰 소유비율은 가구원 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모두 낮은 편은 아니었으나 남성의 소유율이 여성(63.2%)보다 높아 80%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핸드폰 소유비율이 높게 나타나 무학 집단 57.2%의 소유율과 비교해 중등졸 이상의 집단에서는 88%가 소유하고 있어 큰 폭의 차이를 나타

냈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부부노인의 소유율이 가장 높아 88%였는데, 독신노인의 소유율은 가장 낮은 편으로 67% 정도였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유율이 높아 81.4%였으며, 자기 집을 소유한 집단이 핸드폰 소유율이 더 높아 75.7%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이 연간 소득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명신(2003)이나 Hogeboom et al.(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노인 내에서도 정보화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4.3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우울수준은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남성(4.3)보다는 여성(6.1)의 우울수준이 높았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부

<Table 3>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 (n=6774)

		Level of Depression			F/T-test	Suicidal Ideation			F/T-test
		M	SD	N		No(%)	Yes(%)	N	
Gender	Female	6.1	4.7	2897	15.60 ***	2509(86.4)	394(13.6)	2903(100.0)	22.90 ***
	Male	4.3	4.4	3807		3435(90.2)	374(9.8)	3809(100.0)	
Education	uneducated	6.5(c)	4.8	2302	215.50 ***	5944(88.6)	768(11.4)	6712(100.0)	15.49 ***
	Elementary school	4.9(b)	4.5	2229		1996(86.6)	309(13.4)	2305(100.0)	
	Middle school or above	3.7(a)	4.2	2173		1985(88.9)	248(11.1)	2233(100.0)	
		1963(90.3)	211(9.7)	2174(100.0)					
Family Type	Single	6.2(c)	4.7	2221	95.76 ***	5944(88.6)	768(11.4)	6712(100.0)	50.56 ***
	Couple	4.1(a)	4.3	2541		1900(85.4)	324(14.6)	2224(100.0)	
	Live with children	5.1(b)	4.6	1657		2338(91.9)	206(8.1)	2544(100.0)	
		1458(87.9)	201(12.1)	1659(100.0)					
	Live with grandchildren	7.1(d)	4.8	171		150(87.7)	21(12.3)	171(100.0)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5.9	4.8	4292	20.71 ***	5846(88.6)	752(11.4)	6598(100.0)	35.37 ***
	Employed	3.6	4.0	2412		3730(86.8)	566(13.2)	4296(100.0)	
		2214(91.6)	202(8.4)	2416(100.0)					
Home ownership	Non-possession	6.5	4.7	1972	16.08 ***	5944(88.6)	768(11.4)	6712(100.0)	78.08 ***
	possession	4.5	4.5	4732		1644(83.2)	331(16.8)	1975(100.0)	
		4300(90.8)	437(9.2)	4737(100.0)					
		Level of Dep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			Suicidal Ideation			T-test	
					No(%)	Yes(%)			
Number of Family		-0.084***			2.2(1.3)	2.0(1.2)		3.25 **	
Yearly Income		-0.238***			5944	768		7.60 ***	
Age		0.213***			1895.2(1788.4)	1464.3(1433.2)		7.60 ***	
					5944	768		1.36	
					74.2(6.1)	73.9(5.9)			
					5944	768			

* p<.05, ** p<.01, *** p<.001, a<b<c<d

부노인의 우울수준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동거, 독신, 조손가구 순이었다. 취업상태에서는 비취업 노인가구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가구원 수와 연간소득은 우울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연령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자살생각은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에서는 여성노인이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13.6%였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상태의 노인이, 자기 집이 없는 노인의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유형에서는 독신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조손가구, 자녀동거, 부부노인의 순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하는 노인집단은 가구원 수가 적었고, 연간 소득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우울감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낮은 학력수준의, 여성이, 그리고 독신으로 살거나 조손가정을 이루며 사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살생각을 지닌 노인들과도 상황이 같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구 사회적 환경으로 여겨진다.

(Table 4)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y Information Condition (n=6,774)

		Level of Depression			T-test	Suicidal Ideation			X ²
		M	SD	N		No(%)	Yes(%)	N	
Computer/Internet Literacy	Unavailable	5.4	4.7	5886	22.96 ***	5197 (88.2)	696 (11.8)	5893 (100.0)	5.94*
	Available	2.4	3.3	808		737 (91.1)	72 (8.9)	809 (100.0)	
						N	5934 (88.5)	768 (11.5)	
Cellular phone	Non-possession	6.8	4.7	1790	18.59 ***	1562 (87.2)	229 (12.8)	1791 (100.0)	4.33*
	Possession	4.4	4.4	4912		4380 (89.0)	539 (11.0)	4919 (100.0)	
						N	5942 (88.6)	768 (11.4)	

* p<.05, ** p<.01, *** p<.001

(Table 5) Factors to Effect on Level of Depression (n=6,774)

		Model 1		Model 2	
		B	β	B	β
Gender		0.224	0.024	0.328	0.035 *
Age		0.062	0.080 ***	0.031	0.041 **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813	-0.083 ***	-0.713	-0.072 ***
	Middle school or above	-1.495	-0.150 ***	-1.000	-0.101 ***
Employment status		-1.573	-0.162 ***	-1.601	-0.165 ***
Home ownership		-0.974	-0.096 ***	-0.943	-0.093 ***
Number of Family		0.164	0.044 *	0.105	0.029
Yearly Income		-0.001	-0.226 ***	-0.001	-0.193 ***
Family Type	Single	0.492	0.050 **	0.508	0.052 **
	Live with children	1.247	0.117 ***	1.121	0.105 ***
	Live with grandchildren	1.848	0.063 ***	1.820	0.063 ***
Computer / Internet Literacy				-1.361	-0.095 ***
Cellular phone possession				-1.151	-0.110 ***
Constant			2.605**		5.601***
F			116.291***		111.220***
R ² (Adj R ²)			0.163(0.161)		0.181(0.179)

* p<.05, ** p<.01, *** p<.001

※ Dummy : gender(female), education(uneducated), employment status(no), home ownership(no), family type(couple), computer/internet literacy(no), cellular phone possession(no)

4.4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별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별로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집단의 우울수준이 활용 가능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았다.

자살생각 여부 역시 컴퓨터/인터넷 활용 가능 여부와 핸드폰 소유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으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살생각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재휘·김지호·신상화(2002)와 Bell-Ellison(2010), 이운정·안준희·임경춘(2009), Erickson and Johnson(20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정보화 상태는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지지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정신건강 영역의 영향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4.5 우울수준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회귀분석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해 검증한 결과

다음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 1은 정보화 상태 변인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만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인데, 영향력 크기 순으로 해석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 노인이, 중등졸 이상의 학력이나 초등졸 학력의 노인보다 무학의 노인이, 부부노인보다 자녀와 살고 있는 노인, 손자녀와 살고 있는 노인, 독신노인이, 자기 집이 없는 노인이, 고령일수록, 가족원 수가 많은 노인일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16%이다.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정보기기 접근 수준을 포함시켜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컴퓨터/인터넷 활용여부와 핸드폰 소유 여부 변인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즉, 컴퓨터/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일수록, 그리고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우울수준은 낮았다. 모델 2의 설명력은 모델 1보다 2% 증가하여 18%로 나타났다.

표 6은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으로 자살생각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1, 모델 2, 모델 3은 단계적으로 인구사회적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그 다음으로 정보기기 접근 수준을, 마지막으로 우울수준을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6〉 Factors to Effect on Suicidal Ideation (n=6,774)

	Model 1			Model 2			Model 2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Gender	0.263 *	0.115	1.301	0.268 *	0.115	1.308	0.183	0.122	1.201	
Age	-0.036 ***	0.007	0.965	-0.038 ***	0.007	0.963	-0.048 ***	0.008	0.95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100	0.101	0.905	-0.092	0.101	0.912	0.091	0.107	1.095
	Middle school or above	-0.179	0.119	0.836	-0.173	0.124	0.841	0.038	0.133	1.039
Employment status	-0.453 ***	0.093	0.636	-0.448 ***	0.093	0.639	-0.048	0.100	0.953	
Home ownership	-0.524 ***	0.086	0.592	-0.523 ***	0.086	0.593	-0.371 ***	0.091	0.690	
Number of Family	-0.016	0.060	0.985	-0.013	0.060	0.988	-0.058	0.065	0.944	
Yearly Income	0.000 ***	0.000	1.000	0.000 ***	0.000	1.000	0.000	0.000	1.000	
Family Type	Single	0.410 **	0.136	1.507	0.418 **	0.136	1.518	0.313 *	0.143	1.368
	Live with children	0.790 ***	0.150	2.203	0.781 ***	0.151	2.184	0.538 **	0.161	1.713
	Live with grandchildren	0.335	0.260	1.397	0.329	0.260	1.389	-0.040	0.275	0.961
Computer/Internet Literacy				0.023	0.149	1.024	0.475 **	0.161	1.608	
Cellular phone possession				-0.081	0.094	0.922	0.162	0.099	1.176	
Level of Depression							0.227 ***	0.010	1.255	
Constant	1.076	0.576	2.933	1.238 *	0.610	3.448	-0.124	0.656	0.883	
-2Log Likelihood	4497.928			4494.446			3900.276			
Chi-Square	183.274***(df=11)			183.849***(df=13)			771.254***(df=14)			

* p<0.05, ** p<0.01, *** p<0.001

※ Dummy : gender(female), education(uneeducated), employment status(no), home ownership(no), family type(couple), computer/internet literacy(no), cellular phone possession(no)

그 결과, 모델 1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때, 부부노인에 비해 자녀동거노인이, 독신노인이, 남성노인이,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이, 연령이 낮은 노인이, 비취업 노인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정보기기 접근 수준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투입된 컴퓨터/인터넷 활용상태와 휴대폰 소유상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한편,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우울수준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우울수준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즉, 자살생각에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울수준 변인이 가장 유력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가구의 시대적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성공여부는 노인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의 정보화 상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연구의 영역은 노인의 정보화 수준과 실태에 관한 주제와 정보화 적응과정, 그리고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주제들로 정보화에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고 보다 사회환경에 적응 가능한 요인들을 결과로 제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최근의 연구 중에는 가상공간에서의 노인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정서적 고립감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특정 집단에서는 자살을 계획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인의 생활환경이 궁극적으로 노인이 수행해야 할 생활과업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노년기 정보환경의 적응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가능성을 두고 연구문제를 선정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인은 크게 우울과 자살생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일부 제언을 부가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 상태는 남성이,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노인일수록, 그리고 부부만 따로 사는

가구유형이 양호하였다. 이는 반대로 여성이며, 학력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낮고, 고령의 노인인 경우, 그리고 독신이거나, 조손가정인 경우 정보화 환경과 수준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노인집단 내에서도 정보격차가 유발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우울수준과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조손가정 노인의 우울수준이 가장 높았고,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들 중에는 독신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컴퓨터/인터넷 활용과 핸드폰 소유 수준 역시 유사한 패턴으로 낮아 노인 중에서도 정보화 소외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신건강 수준 역시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인터넷 활용 가능 여부와 핸드폰 사용 여부는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정보화 수준의 보유, 정보화 상태를 검증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기기 접근 수준, 즉 수준의 보유와 접근가능한 능력을 지니는 것이 어떠한 차원에서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인과관계적 의미 등을 찾아내기 위해 질적 연구가 추후 보완되어야 하나,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을 높이고 활용능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우울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 정보화 정책 개발과 노인관련 복지사업의 아이템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셋째, 인구사회적변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기기 접근 수준에 관한 변인 중 컴퓨터/인터넷 활용 변인만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은 우울수준에서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더불어 연령 또한 우울수준에 미쳤던 영향력과는 반대로 연령이 낮은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연령이 낮고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양호할수록 우울수준은 낮지만, 반대로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젊고 정보기기 접근도와 활용도가 양호한 노인들은 왜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Feigelman et al.(2008)의 연구나 Shima Sum et al.(2008)의 연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 원인을 예측할 수

있지만, 정보기기 접근 수준과 자살 생각의 촉발요인에 대한 관계성 예측에 있어 행동이나 사고의 과정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선호하는 노인집단의 성향, 자살정보에 대한 수집력 등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 지 추후 다른 요인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

한편 부부노인과 비교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도 독신과 동일하게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 파악도 향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노인이 우울이나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영역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의 가구유형이었다. 현실적으로 현재 부부단독 노인이 늘고 있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독신이나 자녀와 동거하는 거주유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유형에게는 외로움이나 소외 등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지원에 있어 정보기기 보유 및 활용을 위한 개입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개입은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한지, 본 연구를 기초로 상향적 요인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보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새로운 사회서비스 지원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www.kostat.go.kr
- [2]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2). Korea Internet White Paper.
- [3]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1). 2011년 Internet Use Survey.
- [4] Yeongi Son(2008).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for the Advanced Aging Society. *Information and Society*, 13, 33-60
- [5] Fokkema, T., & Knipscheer, K.(2007). Escape loneliness by going digital :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of a Dutch experiment in using ECT to overcome loneliness among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11(5), 496-504.
- [6] Shima Sum, M., Mathews, R. M., Hughes, I., & Campbell, A.(2008). Internet use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08-211.
- [7] Erickson, J., & Johnson, G. M.(2011).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ness during late adulthood. *Canadian Journal on Aging*, 30(2), 197-209.
- [8] Cattani, M., Kime, N., & Bagnall, A. M.(2011). The use of telephone befriending in low level support for socially isolated older people-an evaluation.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9(2), 198-206.
- [9] Barak, A., & Grohol, J. H.(2011). Current and future trends in internet-supported mental health interventions, *Journal of Technology in Human Services*, 29, 155-196.
- [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2.3.30). 「Suicide Prevention and the composition law for a culture of life」 Press release.
- [11]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2). Mental Health Information.
- [12] Park Chung Sun · Lee Chun Ok(2003). A study on the effect of information education experience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Daegu and Gyeongbuk area centered on information education of the elderly-.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8(2), 25-44.
- [13] Hye Kyung Suh · Eun Ju Kim(2004).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Computer of the Older Adults : 10 Elderly Welfare Center in Seoul targeting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2), 21-39.
- [14] Geum yong Lee(200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the Adaptation Process in Later Life .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7(Fall), 7-30.
- [15] Geum yong Lee · Seong Tae Hong · Yun Kyoung Lee(2004). The Internet Using Pattern of the Middle aged in Accordance with Life Style : for Activating Internet Usage of the Old aged Group for the Futur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4(Summer), 215-237.
- [1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2). 2012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 [17]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1). 2010 Chapter Seniors Survey information gap.
- [18]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10). 2010 Information Gap Index and Survey.
- [19] Myung Shin Hong(2003). Study of Internet Usage of Elderly in Korea : Focusing on the initial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187-203.
- [20] Hogeboom, D. L., McDermott, R. J., Perrin, K. M., Osman, H., & Bell-Ellison, B. A.(2010). Internet use and social networking among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36, 93-111.
- [21] Jae Cheol Seo · Chan Hyeong Jo · Joo Young Kim · In Hoe Ahn · Eun Ah Na · Su Mi Park(2008). 2008 Internet Use Surve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22] Jae Hwi Kim · Ji Ho Kim · Sang Howa Shin(2002).A Study on Internet use of the elderly. Chung A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 14, 67-91.
- [23] Yoon Jung Lee · Joon Hee Ahn · Kyung Choon Lim(2009). Analysis of the Needs of Middle and Elder Generation on Serious Game for the Elderly.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10), 75-101.
- [24] Mi Jin Lee · Ka Oak Rhee · Ji Young Lee(2008). The Effects of the Mobile Phone Education Program on Older Adults' Mobile Phone Usability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Information Policy, 15(1), 53-73.
- [25] Joon Hee Ahn · Kyung Choon Lim · Yoon Jung Lee · Kyung Sik Kin(2011).Effects of Computer/Internet Game Pla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Elderly: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elf Control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7), 406-417.
- [26] Feigelman, W., Gorman, B. S., Beal, K. C., & Jordan, J. R.(2008). Internet support groups for suicide survivors : a new mode for gaining bereavement assistance. Omega : Journal of Death & Dying, 57(3), 217-243.
- [27] Sang Kyung Kang · Tae Yeon Gwon(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lcohol -"Tension reduction hypothesis" and the "toxicity hypothesis"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Journal of Social Welfare , 36, 253-280.
- [28] Jo Kae Hwa · Yeong Kyeong Kim(2008). Influencing Factors on Depression, Suicidal Thought, and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176-187.
- [29] Kyung Rim Shin · Youn Hee Kang · Duk YooJun g · Kyung Ae Choi(2007). A Study on the Depression, Somatic Symptom,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Elderly Women in an Urban Area. J Korean Acad Nurs, 37(7), 1131-1138.
- [30] Kyoung Mi Yang(2004). A Study of Elder Abuse in the Domestic Setting: Coping Strategies and the Consequences of Elder Abuse, Shin, 34(6), 1047-1056.
- [31] Jun Soo Hur · Soo Hyun Yoo(2002).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lderly Person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3, 7-35.
- [32] Soon Mi Yang · Choon Seek Rim(2006). A Relativ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377-396.
- [33] Hyoung Soo Kim(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72.
- [3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1). 2011 Senior Survey.

이 윤 정(Lee, Yoon-Jung)



- 1994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가정학사)
- 1996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 리학과(가정학 석사)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 회복지학부 노인복지학 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서비스, 노인복지, 건강가정, 다문화복지
- E-Mail : yoon2525@hoseo.edu